

종합·해설

여·야, '舊정권 임기직 사퇴론' 공방 격화

“코드는 가라” vs “독재로 가나”

잇따른 사퇴 압박에 盧인사들 ‘움짤’... 새 낙하산 사전 정지작업 논란도

여권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1일 당 공식회의에서 한 “각계에 남아 있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추종세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12일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잇따라 사퇴 압박을 계속한 것. 통합민주당은 이와 관련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사회 전 분야를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이 4·9총선 낙선자 배려 등 한나라당 관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여야 갈등 격화>유 장관은 12일 광화문 문화회관의 아침공론 초청강연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정부 과전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전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권력이 언론계와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독재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답게 드디어 독재 분석, 공안 분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사퇴 압박 왜?>여권이 파악하고 있는 교체 대상은 앞 정권에서 임명된 주요 정부직과 공공기관장 등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됐으나 법적 임기 보장을 내세워 사퇴하지 않고 있다. 여권은 이들 인사가 '4·9 총선'에서 '반(反) 이명박 정부'의 한 축을 형성, 여권의 전열을 흐트러뜨린다는 인식이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정리

없는 국정 철학 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속내도 비치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을 무조건 교체하겠다는 발상이 가져올 과장도 만만치 않다. 임기직 취지가 한나라당이 줄곧 비판해온 낙하산 인사를 풀이하는 것인데다, 임명직 교체는 한나라당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길 닦기 차원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거론되는 인사 중 광주·출신은 전 윤철 감사원장(2009년 6월 임기), 김완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2009년 8월 임기), 허상만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2009년 12월 임기), 정순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2009년 5월 임기), 이백만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2009년 8월)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장 외에도 상당수가 공공기관이나 산하단체의 임원으로 포진해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잘못된 공천 있나”

박 전 대표는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했다.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공천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서 “이게 공정하게 공천됐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향후 대응과 관련, “앞으로 남은 것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영남권 50% 교체’ 합의 보도와 관련, “박측 인사를 만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친이측 내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이혜훈’ 등 친박측 핵심 3인 의원에 공천을 주는 조건으로 박 전 대표에게서 절충을 하자는 물밑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이 흘러나 등 갈등 기류는 계속됐다. /연합뉴스

“한미 軍협력 매우 중요”

李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국군포로 문제 적극 해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방을 튼튼히 하고 강군이 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겨야 한다는 뜻이나 더 큰 의무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전쟁 예방을 위해 튼튼한 국방과 국민의 튼튼한 안보의식이 있어야 하고 한미연합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한 야전사령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하고 “군의 체질을 끊임없이 바꾸고 21세기에 걸맞은 국방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한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 군 현대화를 위한 계획도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들었다”면서 “만약 5% 성장만 한다면 우리가 그걸(군 현대화)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강한 군대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군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지

를 연구해야 한다”면서 “복수를 바치는 각오로 조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준 군의 모든 책임자들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이 긍지를 갖고 뚜렷한 국가의무를 수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솔직하고 창조적이고 실용적 정책 방향에 걸맞은 군의 변화를 추구하는 목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문제를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국방장관은 이날 8대 국방정책기조를 제시한 뒤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특히 “아직까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제를 개발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경숙 비례대표 자격 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지난 11일 한나라당의 4·9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이 총장의 신청 자격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여성인데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점을 감안한다면 비례대표 상위 순번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당규를 근거로 이 총장이 비례대표를 받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한나라당 당규 26조 자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정치신인으로 추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총장은 지난 81년 11대 국회에서 민주정의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활동한 바 있는 만큼,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의원을 역임하지 않은 이를 의미하는 ‘정치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당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의원이 비례대표 신청을 못한 것도 이 규정이 엄격히 지켜졌기 때문인 만큼, 이제 와서 이 규정을 어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규에 거론된 ‘정치신인’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있는 만큼 당규가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3~4석 놓고 불꽃 경쟁

한나라당 호남 비례대표 공천 어떻게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마감하면서 광주·전남 출신 신청자끼리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2일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한영 최고위원, 김주현 전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임향순 호남항우회장, 진선수 광주시장 자문위원장, 강성만 부대변인, 문상욱 전 전남도의원,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 이정현 박근혜 전 대표 특보, 김경업 광주 동구 당협위원장, 안희석 전 무안·신안 당협위원장, 임동호 목포대 교수, 김웅우 전 여수갑담합위원장, 양방송 전 동구지구당위원장, 서승주 전 광주시장 사무처장, 강업남 전 전남도의원, 주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문기호 목포대 교수, 안영신 동강전문대 교수, 나모란씨 등이다. <‘전략지역 30%’면 호남에 몇명(?)>당헌·당규에는 ‘비례대표 후보 안정권 공천을 전략지역에 30% 배정한다’고 돼있다. 현재 한나라당의 당 지지도가 45~50%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안정권은 27~30명 정도, 따라서 이의 30%는 9명 내외가 된다. 2005년 당시 당헌·당규를 만든 배경과 의미를 고려하면 호남지역이 30%인 9명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다. 특히, 강재섭 대표가 호남을 방문할 때 마다 50%, 70% 호남에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적이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구 상으로만 해석하면 충청·강원지역에도 비례대표를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아 호남에 6석, 광주·전남에 3~4석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지키나>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호남 비례대표 3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단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남 인사 소외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비례대표 공천에서까지 호남을 홀대하지는 않겠지라는 관측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8년 3월 31일까지!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모집기간 : 3월 31일까지)
과정: 전자정보Technician (다가능기술자),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훈련내용: 컴퓨터초급 및 활용, 정보통신망 및 전자회로 실습, 공 cable 접속 및 측정, UTP cable 접속 및 측정, 정보통신 실무(1개월 현장실습)
자격증: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통신신로 기사사, 정보기기 운용 기사사
모집대상: 1. 만 15세이상~65세 미만 (주부, 미취업자, 일반실업자, 고용보험제외자)
2. 자활훈련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3. 2008년 2월 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야간대학교 및 방송대학교 재학생
훈련장소: 1. 기사, 산업기사 방과후 특별지도, 2. 교동비(6만원) 및 식비(6만원) 지급, 3. 교재비, 실습비 전액국비지원
4. 훈련중 성적우수자 또는 동일직종 자격증 취득시 장학금 지급
5. 훈련후 채용예정업체 취업실선
6. 훈련후 동일직종 취업시 기간제 취업장려금 지급
지원서류: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우체국 통장 사본 1부, 4. 증명사진 3매 (3 * 4cm), 5. 직업훈련 구직등록증 1부(직업훈련 패시포트 교역이수후 발급)
현대직업전문학교
광주 동부경찰서 앞 ☎ 062)224-4560

=늦깎이 공시생들이여, 책을 접어라! 내년1월1일부터 응시연령제지된다!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무직, 관공직, 기술직, 사회복지,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특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무등의 프로교수팀은 생동감 넘치는 강의로, 높은 학습효율을 자랑합니다!! =
9급이론반: 주간 2개월 완성, 야간 2개월 완성
개강: 5월 24일 지방직 대비, 4월 21일
7급강좌: 국가직 7월 26일 지방직 9월 27일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무등'을 찾으십시오!
=無等은 예부터 말보다는 "합격" 실적을 앞세워 가는 학원입니다!! =
무등고시학원
www.mdgoal.co.kr ☎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대특강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안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개강 4월 1일
9급 이론출수반 (2개월완성) 전직종 첫진도
사전예약접수중
한빛공무원학원 전대출문 부구청앞
(062) 252-0252

영어교사 양성과정 입학생모집
영어교사 23000명 내년부터 채용!
TESOL
센츨럴 대학교 TESOL 석/박사
써든 크리스찬 대학교 TESOL 석/박사
아메리칸 리버티대학교 TESOL 석/박사
TESOL 자격증과 학위증서 同時 취득!
입학설명회&공개강의
3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현재 입학원서 접수중
연사: 안요셉 교수 <중앙대학교방과후학교연구지원센터>
홍선미 교수 <국제대지리대>
김점옥 장학관 <서울특별시 영어체험교육원장>
한국 주관사무처: TESOL
아메리카 센터
www.tesolamerica.com
www.tesol.tv
cafe.daum.net/job05
062-227-4268
062-222-6253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34-6
동아외국어학원 2층 062-227-4268
고졸자/전문대졸은 별도 상담